

달서구 달서온(On) 청렴주간 운영한다

달서의 새해 청렴 스위치 ON...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하기 위해 마련



대구 달서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5일간 「달서온(On) 청렴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청렴주간은 1988년 달서구 출범 이후 38주년을 맞아, 청년 달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공직자의 기본 가치인 청렴 의식을 한층 강화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서온(On) 청렴」은 「달서의 청렴 스위치를 켜는 주간」이라

는 의미로, 새해를 맞아 새마을·새각오로 전 직원이 함께 청렴 실천에 동참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청렴주간 동안에는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와 다짐을 담은 청렴선포식 ▲출근길 청렴캠페인 ▲영화 속 사례를 활용한 청렴교육 ▲청렴 이미지를 담은 「청렴네켓」 부스 운영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청렴

공동캠페인 ▲간부공무원부터 새내기 직원까지 참여하는 청렴방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달서구는 2026년 새해의 시작을 청렴으로 열고, 청렴주간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아 구민에게 더욱 당당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청렴주간을 통해 모든 공직자의 마음속에 청렴의 스위치가 켜지고(On), 그 실천이 구민의 행복과 신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이테크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 용해 달라며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지이테크는 산업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관련 기계를 설비하는 전문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윤석 기자

청년이 만든 서울영상광고제 금빛 성과

부산시와 동서대 세계디자인수도 홍보영상 영크리에이티브 금상 수상



부산시와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협업해 제작한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홍보영상의 서울영상광고제에서 영크리에이티브(Young Creative)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수상작은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선정의 의미를 시민과 엠지(MZ)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서울영상광고제가 국내외 젊은 창작자들의 실험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무

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해당 영상은 지역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과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기법을 결합해, 「디자인으로 성장한 도시 부산」의 서사를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이야기 구조를 중심으로 회복과 도전, 공존과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했다. 특히 주제곡 「부산: 디자인 유틸 라이프(Busan: Design Your

Life)」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부산의 역사에서 출발해, 디자인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도시의 여정을 합합 리듬과 인공지능(AI) 그래픽으로 재해석했다.

가사에는 「폐허를 뚫고 피어난 도시, 버려진 공장, 문화의 쉼터로, 디자인이 삶을 바꾸는 방식」 등 도시 재생과 디자인 혁신을 상징하는 표현을 담아, 부산이 「삶의 질을 디자인하는 도시」로 변화해 온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영상은 부산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부산 튜브」(Busan: Design Your Life -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제작에는 ▲AI 기반 3차원 애니메이션 ▲사운드 믹싱 ▲합합 보컬 등 첨단 기술과 젊은 감각이 결합돼,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현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계 디자인수도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우유 기자

울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 추진

울산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월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

이번 가입은 중대재해 대응을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책임행정 모형(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이를 통해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됐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093명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개소 이용자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제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전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공제 가입을 계기로 울산의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5년 설계 경쟁성 검토를 통해 공공시설 품질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설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최적화 아이디어 653건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총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호근 기자

CES에서 삼성SDS와 AI데이터센터 구축 MOU

구미 국가1산단 60MW급 AI데이터센터, 일자리·AI클러스터 조성 기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7일 세계 최대 IT박람회 CES 2026에서(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삼성 SDS와 함께 AI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AI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앞으로 대한민국 AI산업 주도권 확보와 지역산업 전환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삼성SDS는 2032년까지 사업 투자를 통해 구미 국가1산단 일원에 60MW급 전력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 AI 반도체를 적용해 대규모 AI 연산 및 데이터 처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제조·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ES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투자자, 기술 리더들이 한자

리에 모여 미래 산업의 방향과 투자 흐름을 가능하는 상징적 무대인 만큼, 이번 투자협약은 삼성 SDS가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경상북도를 선택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CES 투자협약을 통해 6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경상북도 구미시는 전통 제

조 중심 도시에서 AI·데이터 기반 첨단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게 된다.

구미시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급 IT 인력 유입, 지역 대학과 연계한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관내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연쇄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

으로 기대한다.

한편,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경상북도는 전력 자립률 215.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친환경 전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전력 인프라와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반으로, 경상북도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최적 입지로 국내외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AI 데이터센터는 미래산업의 두뇌를 키우는 핵심 기반인 만큼 삼성SDS와 긴밀히 협업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디지털 시뮬레이션 실전형 교육으로 지휘역량 강화

영상 시뮬레이션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 훈련으로 의사결정 능력 제고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1월 8일 대구 동구 각산동 소방교육훈련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영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전형 훈련으로 운영했다.

교육은 실제 재난 현장을 가상으로 구현한 영상 시뮬레이션 상황을 부여하고, 현장지휘관이 재

난 발생 초기부터 대응 종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지휘권 선언, 상황 보고, 소방력·장비 투입과 배치, 작전 전개, 대원 안전관리 등 현장 지휘작전의 핵심 절차를 실습 중심으로 숙달했다.

특히 실시간 자원관리 훈련을 통해 출동 소방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자원 요청, 재배치 판단 등 지휘관의 핵

심 의사결정 과정을 반복 훈련하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무전통신과 상황판 작성 훈련을 병행해 현장 지휘·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교육 대상은 신규 현장지휘단장(안전·조사팀장 등)과 희망자 30여 명이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단계적으로 편성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엄준옥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 대응의 성패는 현장의 지휘력에 달려 있다”며 “평상시 반복 훈련을 통해 지휘역량을 체계

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체계를 더 촘촘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동성로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재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변경된 지정(안)은 ▲대상 지역을 관광특구 내 거리 구간으로 변경 ▲디지털 벽면이용간판(2~23층) 및 옥상간판(3~23층) 설치 층수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윤석 기자

기업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로 투자유치 경쟁력강화

진주 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로 체계적인 기업 유치와 지원 기반 마련



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 전담 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신설된 '투자유치과'는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산단조성팀 ▲산단지원팀 등 4개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기업 유

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장기 투자유치 정책과 전략 수립을 총괄하며 지역 산업 여건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기업유치 협의체와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상담과 투자 제안 등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집적을 위해 경남 우주항공국가

산업단지(진주지구)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신규 산업용지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입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산업단지 운영·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이번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연계한 윈윈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찾고 싶은 투자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룡 기자

경남 2025 고향사랑기부제 109억 원 모금 43% 증가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모금 실적을 기록하며, 2025년 한 해 도·시군 합산 총 109억 원을 모금했다. 이는 전년 76억 원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전체 기부 건수는 8만 8,336건에 달한다.

특히 도 본청의 경우 당초 목표액 1억 5,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2억 500만 원을 모금해 목표 대비 137%를 달성했다.

지난해 1억 3,900만 원 대비 약 48% 증가한 실적이다.

기부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그 뒤를 이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직장인 층이 기부 참여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경남도가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연중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남도는 진해 군항제를 시작으로 제106회 부산 전국제전, 울산 고향사랑 박람회 등 주요 행사 현장에서 도·시군 합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제도 취지와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엘

지전자(창원), 삼양식품(밀양), 우주항공청(사천), 성우하이텍(양산), 대흥알앤티(김해) 등 도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을 도와 시군이 함께 방면해 직장인을 중심으로 기부 참여 확대를 도모했다.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답례품 제도도 성과를 이뤘다.

경남도는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답례품 품목을 2025년 1월 28개에서 10월 76개로 약 2.7배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인기 답례품은 남해 돌

살 순으로 나타나 지역 특색을 담은 농·특산물이 기부자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사업도 활발히 추진됐다.

특히 '지정기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 긴급 모금(8억 1천만 원)과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긴급 지정기부(6억 7천만 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져 재난 극복에 큰 힘이 됐다. 백종철 과장은 “기금사업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